

TOURISM SCOPE

2018. Vol. **41**
ISSN 1739-5089

The Official Magazine of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sunoshima-ohashi Bridge, Shimonoseki City, Japan



14TH INTERNATIONAL TRAVEL EXPO

6 – 8 SEPTEMBER 2018
SAIGON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
HO CHI MINH CITY, VIETNAM

Your Gateway to Tourism in Asia



- ORGANISED BY**
- Vietnam National Administration of Tourism
 - Ho Chi Minh City Department of Tourism
 - VINEXAD Trade Fair & Advertising JSC
 - Informa Exhibitions

- SUPPORTED BY**
- Ministry of Tourism, Cambodia
 - Ministry of Information, Culture and Tourism, Lao PDR
 - Ministry of Hotels & Tourism, Myanmar
 - Ministry of Tourism and Sports; Kingdom of Thailand

- ENDORSED BY**
-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Vietnam
 - People's Committee of Ho Chi Minh City



www.itehcmc.com

International.Travel.Expo @ ITE.HCMC

Contents



02 Special Theme
완벽한 휴가를 위한 선택, 타이핑



06 City Inside
활기와 여유가 공존하는 호치민 시티 투어



10 Focus On
2가지 타입으로 즐기는 전주 여행



14 Concept Travel
세계의 스노클링 스포츠 6

18 TPO People
일본 시모노세키 시장, 마에다 신타로
간몬해협을 품은 시모노세키 시의 매력을 말하다

20 TPO News
TPO 뉴스

22 Festival Calendar
TPO 도시 회원 축제 캘린더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TPO)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도시 간 네트워크로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창설된 관광 분야 국제기구입니다. TPO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회원도시 간 관광산업 정보 교환을 비롯해, 관광 상품 개발, 공동 마케팅 사업, 관광 분야 교육 및 인재 육성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TPO에는 2018년 5월 기준으로 86개 도시 정부와 45개 민간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민간 회원은 관광산업과 관련된 협회, 연구 기관, 관광지 마케팅 기관(DMO)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PO는 아시아·태평양 내 도시 관광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완벽한 휴가를 위한 선택 타이핑

한 번도 못 가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다녀온 사람은 없다는 마성의 여행지 말레이시아. 그 시작을 끊기 위해 여름휴가지로 타이핑을 선택했다. 여행 책자에도 없는 타이핑에서 태초의 자연과 생생한 역사를 두 눈에 담았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누군가 여행이 어땠냐고 물었다. 그때 생각했다. 단 몇 마디로는 형용되지 않는 나라, 이제 그 대답을 찾으려 두 번째 말레이시아 여행을 해야겠다고.

에디터 고아라 사진 이효선(프리랜서)



타이핑 여행 정보

위치 말레이시아, 페락 주 서부의 도시. 말레이 반도 남서부, 포 북서쪽 48km에 있다. **면적** 186.5km² **인구** 191,104 명 **기후** 1년 내내 고온다습한 열대우림기후로 연평균 기온이 27도. 우기인 10월부터 2월 사이에는 유난히 덥고 습하며 비가 자주 내린다. **개요** 19세기 주석 광산지이자 페락(Perak) 주의 수도로 말레이반도 서부의 간선도로와 철도가 지나가는 상업도시다. 해안의 저습지에서 약 20km 떨어진 내륙에 있고 배후에 허잔산(1,448m)이 있다. 과거 키타 협곡의 주석 광산지를 끼고 그 중심지로서 번영하였다.

말레이시아의 숨은 보석 타이핑

‘영원한 평화의 도시’를 뜻하는 이름에 걸맞게 때 묻지 않은 대자연과 순수한 마을 주민이 여행자를 반기는 곳. 19세기 주석 광산지이자 영국군의 지배지로, 번영과 상체를 모두 경험한 도시. 많은 사연만큼 다양한 모습을 간직한 타이핑의 매력은 끝이 없다.



고지대에 자리한 휴양지 부킷라루트 Bukit Larut

높이 1035m로 타이핑에서 가장 높은 고원이다. 1884년 영국인 윌리엄 에드워드 맥스웰(William Edward Maxwell)이 유독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이곳을 발견하고 산책로와 정상 부근의 리조트를 개발하면서 알려졌다. 한 때 부킷라루트가 ‘맥스웰 힐(Maxwell Hill)’이라 불린 이유다. 부킷라루트의 리조트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산 정상의 숙소로 해발 1250m에 자리하고 있다. 입구에서 정상까지는 약 13km. 모험심이 강한 여행자들은 두 발로 산을 오르기 도 하지만, 웬만하면 산 입구에 마련된 랜드로버를 이용할 것을 추천 한다. 오프로드를 달리는 재미도 있지만, 말레이시아 기후 특성상 습도와 온도가 모두 높아 쉽게 지치기 때문이다. 가는 길이 가파르고 거칠지만 정상에 오르고 나면 험난한 여정은 까맣게 잊을 정도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초원이 눈앞에 펼쳐진다. 발아래로는 온통 초록빛으로 물든 부킷라루트의 전경이, 날씨가 맑은 날엔 저 멀리 해안선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주소 Pegawai Penjaga Bukit Larut, Perak, 34000 Taiping



야생동물의 낙원 타이핑 동물원 Zoo Taiping

말레이시아 최초의 동물원. ‘타이핑’ 하면 바로 이곳을 떠올릴 정도로 유명하다. 14만m²에 달하는 큰 규모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물이 스트레스받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운영하는 점이 이목을 끌었다. 여는 동물원과 달리 동물 쇼가 없는 것이 특징. 쇼를 위해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동물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라고. 동물이 지내는 구역은 야생 환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꾸며져 있다. ‘사바나’ 구역에서는 실제 사바나 지역의 풍경처럼 기린과 얼룩말, 타조 등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을 볼 수 있다. 울타리와 그물, 유리 벽 등을 최소화하거나 낮게 설치해 동물과 사람 간의 거리도 좁혔다. 구경한다기보다 함께 어울려 논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다. 말레이시아 호랑이와 오랑우탄 등 현지 동물을 비롯해 150여 종에 이르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산 동물과 조류를 볼 수 있는 곳. 동물원의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 구석구석을 누비는 카트가 구비되어 있다. 천천히 걸으며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날씨가 무더운 날엔 카트를 이용해 이동하는 편이 좋다. 도심과 가까이 자리해 찾아가기도 편하다.

주소 Jalan Taman Tasik Taiping, 34000 Taiping, Negeri Perak



말레이시아의 역사를 한눈에 페라크 주립 박물관 Perak Museum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으로 1883년에 설립됐다. 페라크에 거주하던 영국인 휴 로(Hugh Low)의 수집품을 비롯해 페라크주는 물론 말레이시아의 예술품과 문화적 유품, 동물 박제 등을 관람할 수 있는 곳. 전시 공간은 자연 갤러리와 문화 갤러리, 원주민 갤러리, 육외 전시회 등 총 네 파트로 나뉘어 있다. 자연 갤러리에서는 코끼리와 호랑이를 비롯해 페라크 정글에 사는 동물의 박제를 감상할 수 있다. 문화 갤러리에서는 말레이시아 특산물인 수공예품의 종류부터 역사와 발달 과정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페라크를 대표하는 상품인 대나무 수공예품은 놓치지 말 것. 원주민 갤러리에 들어서면 말레이시아의 소수민족인 ‘오랑아슬리(Orang Asli)’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들의 신체 특징과 생활 방식부터 주로 사용하던 독특한 문양의 가면까지 낱알이 전시되어 있기 때문. 박물관 뒤편으로 나서는 페라크 박물관의 야외 갤러리가 나타난다. 이곳에서는 1920~70년대를 주름잡던 클래식 카와 19세기 증기기관차, 말레이시아 공군 제트 전투기 등을 그대로 옮겨와 전시해 역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주소 Jalan Taming Sari, 34000 Taiping, Negeri Perak

몸으로 즐기는 타이핑

청정 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타이핑에서는 일반 도심 관광지에서 즐길 수 없는 액티비티가 많다. 포장되지 않은 가파른 도로를 사륜차로 달리거나 무성한 나무로 뒤덮인 암벽을 끈 하나에 매달려 내려오는 등 평소 접하기 힘든 액티비티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자.



사륜차로 오프로드 달리기

ATV Adventure Park Larut

타이핑 시내에서 동물원을 지나 조금 더 들어가면 ATV 테마 공원이 등장한다. 한국이나 다른 여행지에도 ATV를 즐길 수 있는 곳은 많지만 이곳은 조금 특별하다. 잘 닦인 ATV용 도로가 아닌 야생 상태의 자연을 달리는 코스 준비돼 있기 때문. 울창한 나무 사이로 달리는 산길 이 있는가 하면 물이 흐르는 계곡 위를 지나기도 한다. 코스가 끝나고 나면 온몸이 땀과 계곡 물로 흠뻑 젖지만 짜릿한 여운이 남아 인기가 많다.

주소 Lot 3644, Pejabat Rekreasi, Jalan Bukit Larut, 34000 Taiping, Negeri Perak



말레이시아 국민체조 Taiping Lake Garden

레이크가든은 말레이시아에서도 최고의 명소로 꼽히는 아름다운 공원. 주석 채굴장이 드넓은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하면서 타이핑 시민은 물론 관광객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가 됐다. 거대한 레인트리가 끝없이 늘어서 있고 커다란 호수 주변으로 잘 다듬어진 길이 뻗어 있어 산책하기 좋다. 타이핑의 시민들은 매일 아침, 이곳의 너른 잔디밭에 모여 우리나라의 국민 체조와 비슷한 운동을 한다. 슬쩍 현지인 사이에 끼어 체조를 해보자. 간단한 동작 같지만 어느새 땀으로 흠뻑 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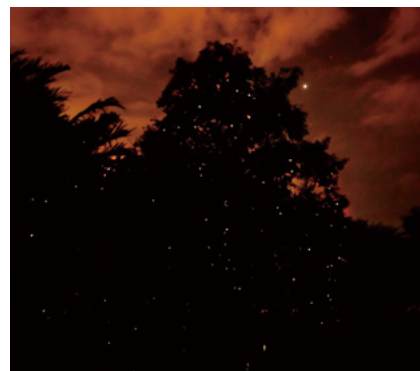
주소 Jalan Pekelling, Taman Tasik Taiping, 34000 Taiping, Negeri Perak



야시장에서 놀고먹기 Bazar Cross Street

타이핑 시민들은 주말이면 바자르 크로스 스트리트로 모인다. 차로까지 막아두고 큰 야시장을 열기 때문. 현지인이 즐겨 먹는 길거리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포장마차와 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마사지 숍, 독특한 문양을 원하는 신체 부위에 그릴 수 있는 헤나 스킵 등 다양한 부스가 거리를 가득 채운다. 중앙 광장에서는 버스킹 공연이 열리는 데, 가수와 관객이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주소 Jalan Alang Ahmad, 34000 Taiping, Negeri Perak



반딧불이 투어 Kampung Dew Fireflies

동남아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반딧불 투어를 타이핑에서도 즐길 수 있다. 타이핑 중심을 가로지르는 순가이 강은 반딧불이 명소 중 명소. 강 양쪽으로 반딧불이가 좋아하는 맹그로브 나무가 늘어서 있어 그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해가 완전히 지면 순가이 강가에 위치한 선착장에서 작은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돌아보는 여정.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한 작은 전구처럼 실 새 없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시간이 금세 지나간다.

주소 1, Kampung Dew, 34400 Simpang Empat Semanggol, Negeri Perak

현지인처럼 로컬 음식 즐기 푸삿 히브란 라루트 마탕 Pusat Hiburan larut matang

타이핑식 푸드코트로 큰 건물 1층에 작은 로컬 식당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국숫집부터 빙수 가게, 로티 가게, 카페 등 다양한 매장이 입점해 있어 식사부터 디저트나 티타임까지 한번에 즐길 수 있는 곳. 가격도 일반 식당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맛도 좋아 현지인이 즐겨 찾는 곳이다. 실제로 이른 시간부터 넓은 공간을 가득 채울 만큼 많은 사람이 모이지만 외국인은 거의 없다. 타이핑 시민처럼 아침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곳을 추천한다.

주소 Jalan Chung Thye Phin, 34000 Taiping, Negeri Perak
영업시간 가게마다 다름 가격 국수 4~6링깃, 로티 1~3링깃



얼큰한 국물이 일품인

막테 미 반지르 우당 Makteh mee banjir udang

맹그로브 숲 근처에 자리한 해산물 국수 맛집. 그중 새우 국수는 이 레스토랑을 대표하는 메뉴다. 국수를 주문하면 큰 새우가 그릇 가득 담겨 나와 비주얼 만으로도 침샘을 자극한다. 얼큰하면서 해산물 특유의 향이 감돌아 한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는 편. 국물을 떠먹다 보면 자연스레 밥을 주문하고 싶어진다.

이곳에서는 밥을 주문하면 갖가지 채소와 함께 간단히 볶은 밥을 내주는데 국물에 말아 먹는 것이 별미다.



주소 Tebok Matang, 34750 Matang, Negeri Perak
영업시간 10:00~22:00
가격 새우 국수 15링깃



말레이시아식 빙수 시 산 아이스 스톨 si san ice stall

1년 내내 무더운 말레이시아를 여행하다 보면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간절해진다. 이럴 땐 빙수가 제격. 시 산 아이스 스톨은 포장마차 형태의 빙수 가게로 거리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다. 동남아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망고 빙수와 말레이시아 스타일의 팔빙수인 아이스크림(ABC)을 맛볼 수 있는 곳. 특히 아이스크림은 곱게 간 얼음 위에 달콤한 과일 옥수수, 젤리, 견과류 등을 올리고 연유와 시럽을 듬뿍 뿌려 아이와 어른 모두 좋아한다.



주소 Jalan Panggung Wayang, 34000 Taiping, Negeri Perak
가격 망고빙수 4링깃, ABC 4링깃
영업시간 07:00~17:00

시간이 증명한 타이핑 맛집

타이핑에는 관광 명소만큼이나 오래된 레스토랑이 많다. 허름한 외관에 망설였다가도 무엇이든 한입 떠먹는 순간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싹싹 비우게 될 것. 한국인 입맛에 잘 맞고 가격도 훨씬 저렴하다.



말레이시아 전통 음식 퀴이 테오 돌리 Kuey tiau Doli

오픈한 지 40년이 훌쩍 넘는 타이핑 맛집. 타이핑을 찾아온 여행자라면 꼭 한 번 들르는 유명한 레스토랑이다. 말레이시아 음식을 중국식으로 재해석해 선보이는데 맛이 좋아 현지인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다. 대표 메뉴는 볶음 국수인 퀴이 테오 고크. 면에 '단짠' 소스와 불맛이 함께 깊이 스며들어 있다. 바삭 구운 치킨과 밥, 짭조름한 소스, 매콤달콤한 소스, 구수한 국물이 한 세트인 나시 아얌도 인기 메뉴. 주말에는 사람이 많아 줄을 서야 하니 평일에 찾아가는 것이 좋다.

주소 5, Regat Taski, Medan Taiping, 34000 Taiping, Negeri Perak
전화 +60-16-553-8026
영업시간 11:30~23:00
가격 퀴이 테오 고크(볶음 국수) 8링깃



활기와 여유가 공존하는 호치민 시티 투어

베트남에서 가장 큰 도시, 호치민 시. 뜨거운 햇살이 순백의 프랑스풍 건물 위로 쏟아지고, 도심 곳곳에 자리한 공원은 한낮의 여유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인다. 거리를 가득 메운 스쿠터의 경적소리는 24시간 멈추지 않고, 최신식 고층빌딩 사이로 아오자이를 곁게 차려입은 여인의 미소가 스쳐 지나간다. 이국적인 풍경과 평범한 일상이 교차하는 곳, 호치민 시를 걸어보자.

에디터 고아라 사진 이효선(프리랜서)



호치민 시 여행 정보

위치 베트남 남부 면적 2095km² 인구 7,396,446(2010년) 기후 열대 몬순 기후. 최저 기온은 25℃이고 최고 기온은 40℃이다. 5월~11월은 우기이며 12월~4월은 건기이다. 개요 베트남 경제중심지. 현재 13개 구 및 6개구를 추가 개발하여 도시 확장 지역으로 정하고, 그 외 꾸찌(Cu Chi), 나베(Nha Be) 등의 공업 지역, 칸저(Can Gio) 맹그로브 숲·동나이(Dong Nai) 강 등의 생태 관광 지역, 꾸찌·칸저 등 농업·생태 보존 지구, 농촌 거주 지역, 자연보호 지역 등으로 시를 나누어 개발하고 있다.



호치민 시의 상징 인민위원회 청사 Uy Ban Nhan Dan Thanh Pho

‘동양의 파리’로 불리는 19세기 건축. 중후하고 화려한 프랑스 스타일 건물로 호치민 시 인민위원회 청사다. 1902년에 짓기 시작해 1908년에 완공했으며 정부기관이라 내부는 공개하지 않는다. 연한 레몬 색 벽면에 흰색의 대리석 조각상과 기둥, 좌우대칭 회랑 등 섬세하고 아름다운 19세기 건축물의 백미로 꼽힌다. 밤에는 조명이 들어와 낮과는 또 다른 풍경을 연출한다. 원칙적으로 촬영이 금지되어 있지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찍으면 별 문제 없다.

주소 So 86 Le Thanh Ton, Ben Nghe, Quan 1, Ho Chi Minh 710212 전화 +84-28-3829-6052 운영시간 07:30~17:00, 주말 휴무 홈페이지 hochiminhcity.gov.vn



베트남 독립의 역사적 장소 통일궁 Reunification Palace

프랑스 식민지 시절, 프랑스 총독 대사의 관저로 사용되다 남베트남 정권 시대에 대통령의 궁으로 쓰였다.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군의 탱크가 진입하면서 베트남공화국 정부가 항복 했던 역사적인 장소다. 베트남의 현대사를 이해할 수 있는 호치민 시 대표 관광지로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지금도 이곳에서 정부의 중요한 미팅이나 행사가 개최된다. 베트남 전쟁 당시 작전실로 사용되던 지하 방들도 구경할 수 있다.

주소 135 Nam Ky Khoi Nghia, Phuong Ben Thanh, Quan 1, Ho Chi Minh 700000 전화 +84-28-3822-3652 운영시간 07:30~23:00 입장료 4만 동 홈페이지 dinhdoclap.gov.vn



아름다운 프랑스식 성당 노트르담 대성당 Nha Tho Duc Ba

1877년에 짓기 시작해 1883년에 완공된 가톨릭교회. 프랑스 식민 시절 지어진 건물로 프랑스에서 들어온 건축 재료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19세기에 지어진 전형적인 네오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높게 치솟은 2개의 첨탑과 광장의 성모 마리아상이 눈길을 끈다. 마리아상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고 해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형화된 관광 지 느낌이 찾는 방문객이 너무 많아 성당 특유의 성스러운 분위기는 느끼기 어렵다.

주소 Ben Nghe, Ho Chi Minh City



베트남에서 가장 거대한 우체국 중앙우체국 Buu Dien Trung Tam Thanh Pho

노트르담 대성당 오른쪽에 위치한, 베트남에서 가장 큰 우체국이다. 프랑스식의 콜로니얼 양식으로 지어진 외관이 인상적. 우편 서비스와 국제 전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우표와 엽서를 판매한다. 내부에 들어서면 유럽의 기차역을 닮은 높은 아치형 천장이 시선을 끈다. 중앙에는 베트남의 영웅인 호치민의 사진이 벽면을 가득 채울 만큼 크게 걸려 있다.

주소 So 125 Cong xa Paris, Ben Nghe, Quan 1, Ho Chi Minh 710009 전화 +84-28-3822-1677 운영시간 07:00~19:00, 일요일 08:00~18:00 홈페이지 hcmpost.vn



흥정 필수, 호치민 시의 만물상 벤탄 시장 Cho Ben Thanh

호치민 시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레 로이(Le Loi)거리에 있다. 베트남에 관한 없는 것이 없을 정도. 모두 모인 만물상. 좁은 길 사이로 오밀조밀 모인 4000여 개 상점에서 의류와 신발, 가방, 식료품, 꽃, 그릇 등을 판매한다. 기념품을 사기에도 제격. 현지 사정에 낯선 여행자에게는 높은 값을 부르니 날카로운 흥정은 필수다. 저녁 7시부터 건물 내 상점이 문을 닫고 거리로 나와 야시장이 펼쳐진다. 베트남 음식을 판매하는 각종 포장마차와 노점이 들어서 온 거리가 활기차다. 문을 닫는 시간은 가게마다 다르지만 보통 저녁 11시까지 영업한다.

찾아가는 법 시민극장에서 도보 10분

타워 아래 호치민 시 사이공 스카이드ек Saigon Skydeck

2010년에 지어진 지상 68층, 267m 높이의 비텍스코 파이낸셜 타워(Bitexco Financial Tower). 52층 벽부분에 설치된 헬기장이 유명하다. 호치민 시민과 관광객들이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보기 위해 찾는 호치민 시의 마천루. 1초에 7m를 오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49층에 오르면 호치민 시의 독특한 도시 풍경을 360도로 전망할 수 있는 사이공 스카이드ек 전망대를 만날 수 있다.

주소 36 Ho Tung Mau, Ben Nghe, Quan 1, Ho Chi Minh
전화 84-839156-156 운영시간 일-목요일 09:30-21:30, 금-토요일 10:00-22:00 입장료 성인 20만 동, 어린이 13만 동 홈페이지 www.saigonskydeck.com



베트남전쟁의 역사 전쟁박물관 War Remnants Museum

박물관에 관심이 없다면 기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호치민 시의 전쟁박물관만큼은 꼭 둘러보자.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 정부 부속이 있던 곳에 세워진 박물관으로 전쟁의 역사를 기록해 평화를 소망하는 곳. 베트남전쟁 당시 참혹했던 현장을 다양한 국적의 134명 사진가가 카메라에 담았다. 전쟁 때 실제로 사용했던 탱크와 전투기, 미사일 등 무기와 전쟁 자료들을 전시하고, 여러 모형으로 재현한 것도 볼만 하다.

주소 28 Vo Van Tan, Phuong 6, Quan 3, Ho Chi Minh 700000
전화 84-8-3930-6325 운영시간 07:30-18:00 입장료 1만 5000동
홈페이지 baotangchungtichchientranh.vn



베트남의 블루보틀 콩카페 Cong Ca P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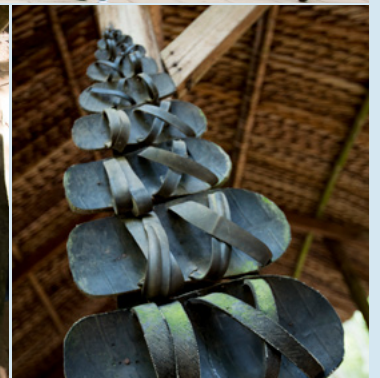
하노이에서 시작해 호치민 시와 다낭 등 베트남 중남부의 주요 도시로 뻗어 나가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로컬 프랜차이즈 카페. '콩(Cong)'은 '공동 또는 공공'을 의미하는 단어로, 베트남을 연상시킨다. 실제로 이 카페의 테마는 공산당원. 카페의 인테리어부터 스태프의 복장, 기타 판매 상품까지 공산주의 색채가 물씬 풍긴다. 인기 메뉴는 단연 코코넛 커피. 코코넛 스무디에 커피를 넣어 만든 음료로, 빨대로 한 모금씩 들이켜면 커피의 씩씩한 맛과 코코넛 스무디의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 사람도 호치민 시에 머물 동안 매일 찾을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다.

주소 2 Mac Thi Bui, Ben Nghe, Quan 1, Ho Chi Minh 전화 +84-91-181-11-63
운영시간 07:00-23:00 가격 코코넛 커피 스무디·코코넛 스무디 6만 5000동
홈페이지 www.congcaphe.com

호치민 시 근교 여행, 베트남 전쟁 해방 전선의 기록 구찌 Cu Chi

호치민 시 중심가에서 북서부 방향으로 40km 떨어진 구찌는 고무나무 숲 등 울창한 밀림이 끝없이 이어진 매우 평화로운 지역이지만, 베트남전쟁이 한창이던 1960년대에는 베트남들이 광범위한 지역에 땅굴을 파고 미군들에게 맞섰던 유명한 격전지였다. 현재 터널 지역 중 두 곳을 방문객에게 공개하는데, 호치민 시 서쪽으로 약 70km 떨어진 반즈억(Ben Duc)에 주로 여행자들이 몰린다. 총길이 250km 이상의 터널은 4층 구조에 참호와 침실, 작전본부, 주방과 병원 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현재 땅굴의 일부를 공개해 원하면 들어가 볼 수 있다. 실탄을 사용한 사격장이 함께 있어 하루 종일 총성이 울려 퍼져 마치 베트남전쟁의 한복판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실탄 사격 1발에 US\$ 1.

주소 TL15, Phu Hiep, Ho Chi Minh, 733814 전화 +84-28-3794-8830
운영시간 07:00-17:00 홈페이지 diadaocuchi.com.vn



2가지 타입으로 즐기는 전주 여행

후백제의 수도였던 전주는 조선시대에 전라감영의 소재지이기도 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어느 도시보다 잘 보존하고 계승하고 있는 전주의 면면을 만나고 왔다. 걷기를 좋아한다면 객리단길에서 시간을 보내고, 햇살 아래 피크닉을 즐기고 싶다면,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떠나자.

에디터 심민아 사진 이근수(프리랜서)



전주 여행 정보

위치 대한민국 전라북도 중부에 있는 시. **면적** 206.22km² **인구** 651,990명(2014년 기준). **기후** 남부내륙형 기후군에 속하며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서풍, 봄철엔 이동성 고기압에 따른 서풍이, 여름철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남동풍이 분다. 연평균기온 12.9℃, 1월 평균기온 -0.6℃, 8월 평균기온 26.1℃, 연평균강수량은 1,286mm다. **개요** 전라북도 행정, 교육, 문화의 중심지이며 도청소재지다. 전라북도는 지형적으로 노령산맥을 경계로 동부산악권, 서부평야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주는 그 산간지대와 호남평야의 접경지대에 있다.

Type 1. 드라이브 여행

차를 타고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온몸으로 자연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 전주동물원을 비롯해 연못을 품에 안은 전주덕진공원, 폐공장의 차가운 이미지를 거뒀던 팔복예술공장 등 연인들의 마음을 흠치기에 충분하다.



벚꽃 흠날리는 로맨틱 동물원 전주동물원

덕진공원에서 멀지않은 곳에 벚나무로 둘러싸인 동물원이 있다. 1978년 6월에 개관한 전주동물원은 지방 동물원으로는 유일하게 호랑이와 사자, 기린, 하마, 들소, 큰뿔소, 낙타, 침팬지 등 다수의 동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희귀 동물인 반달가슴곰과 얼룩말, 재규어 등 103종 610여 마리의 동물이 살아가고 있다. 하얀 벚꽃이 탐스럽게 피어나는 봄이 되면 동물원은 사람들로 가득하다. 350여 그루의 왕벚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아름다운 벚꽃 터널을 만들기 때문. 연인들은 손을 잡고 1.5km의 벚꽃길을 걷는데, 연신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4마리 늑대가 살고 있는 '늑대의 숲'이 특히 인기. 방사장 지붕을 없애고 본래 서식 환경에 가깝게 자연 상태로 꾸민 것이 특징. 늑대들은 고목나무 아래 굴을 파고 들어가 쉬는데, 평소엔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찾아야 한다.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68 **전화** +82-63-281-6759 **운영시간** 3~10월 09:00~18:00, 11~2월 09:00~17:00, 야쿠아리움 09:00~17:30 **입장료** 성인 13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400원 **홈페이지** <http://zoo.jeonju.go.kr>



전주 최대의 자연 공원 전주덕진공원

정문인 연지문을 통과하면,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여자 조형물이 반긴다. 전주 덕진공원의 자랑거리인 덕진연못을 가로지르는 연화교. 길이 260m, 폭 1.2m, 높이 16m로, 내륙 최장 거리의 현수교로 알려져 있다. 출렁이는 다리를 건너면 중간 지점에 3층 심터 정자인 '연화정'이 나온다. 층층마다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전망대로 손색이 없다. 해마다 7월이 되면 '전주연꽃문화제'가 열려 전국 각지에서 인파가 몰려든다. 곡선형 제방을 따라 천천히 걸다보면 마치 연꽃 위를 걷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연꽃무리에 둘러싸인 연지정(蓮池亭)이 연꽃 감상 포인트. 4만여 m²의 연못을 꽉 채운 100만 송이의 연꽃 물결은 큰 감동을 안겨준다. 4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음악분수를 운영해 볼거리를 선사한다.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1314-4 **전화** +82-63-239-2607 **입장료** 무료





태조 이성계를 만나다 경기전

태조 이성계의 어진(御眞, 초상화)을 만난다는 들뜬 마음을 안고 홍살문(紅箭門)을 지나 외신문, 내신문을 거쳐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정전'에 발길이 닿았다. 높게 돌은 석축 위에 지어진 정전은 맞배집 건물로, 현재의 어진은 1999년 권오창 화백이 모사한 것이다. 1872년 고종 9년에 모사한 태조 어진 진본은 비단에 채색한 것으로, 현재 어진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경사스러운 터에 지은 궁궐'이라는 뜻의 경기전은 조선을 건국한 태종 이성계의 본향, 전주를 상징하는 중요 건축물이다. 1410년 태종 10년에 창건, 1597년 정유재란 때 소실됐다가 1614년에 중건됐다. 웅장한 나무로 뒤덮인 고색창연한 경기전 안은 한복 입은 이들로 가득하다.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102 전화 +82-63-298-1330 운영시간 3-5월, 9-10월 09:00-19:00, 6-8월 09:00-20:00, 11-2월 09:00-18:00 입장료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



폐공장의 화려한 변신 팔복예술공장

3월 23일 팔복동 철길 옆에 있던 폐공장 부지가 예술의 손길로 새 생명을 얻었다. 27년 간 방치된 옛 카세트테이프 공장을 전주시에서 사들여 전주문화재단과 함께 시민을 위한 예술 놀이터로 탄생시킨 것. 1979년에 문을 연 카세트테이프 공장 (주)쓰렉스는 1991년 폐업 후 마을의 흉물처럼 여겨졌다. 최대한 본래의 모습을 살려 리모델링에 성공한 팔복예술공장은 전시공간인 1단지와 2단지를 비롯해 13명의 작가가 상주하는 창작스튜디오, 카페와 아트숍, 컨테이너 브리지, 옥상놀이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장굴뚝을 떼어내 간판으로 사용하고, 잿빛 콘크리트 벽에 알록달록한 현대미술 작품을 내걸고, 버려진 컨테이너박스는 두 건물을 잇는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한다. 팔복예술공장에서 근무하는 10여 명의 직원은 실제 팔복동 주민들. 이들은 어려운 전시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해설사로, 따스한 커피를 내려주는 바리스타로 활약하고 있다.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구렛뎌1길 46 전화 +82-63-283-9221 운영시간 평일, 일요일 10:00-18:00 토요일 10:00-21:00, 월요일 휴관 홈페이지 www.palbokart.kr

인간문화재를 가리다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무형유산원은 전사가 열리는 '열린마루', 대극장과 소극장을 갖춘 '일쭈마루', 교육 공간인 '전승마루', 숙소 공간인 '사랑채', 각종 세미나가 열리는 '어울마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형문화재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다면, 가장 먼저 열린마루의 상설전시실로 향하자. 1층에 마련된 한지 장식의 원형전시실에서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 상징물을 감상할 수 있다. 눈쇠로 만든 '방짜고리밥통'과 소주를 증류시켜 내리는 '소줏고리', 무덤 자리나 집터를 정할 때 사용하는 '윤도' 등이 볼만하다. 원형 전시실 뒤로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펼쳐진 영상에 시선이 머문다. 2월 1일 누리마루에 문을 연 '라키비움(Larchiveum)' 책마루도 놓치지 말자. 정조의 책가도(冊架圖)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한 도서관으로, 삼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전망이 뛰어나다.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화로 95 전화 +82-63-280-1400 운영시간 전시실 09:30-17:30, 월요일 휴관 입장료 무료 홈페이지 www.nihc.go.kr



Type 2. 객리단길 걷기 여행

서울에서 시작된 '리단길'의 인기를 전주에서도 느낄 수 있다. '전주객사길'과 '경리단길'을 합친 '객리단길'은 전주의 젊은 주인들이 모여 만든 거리. 같은 콘셉트의 상점은 하나도 찾을 수 없다.

빨간 지붕의 꽃집 화공간

시대극 세트장 같은 고풍스러운 외관 때문에 객리단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포토존이다. 화공간의 이진원 대표는 편하게 기념 촬영할 수 있도록 가게 앞에 벤치를 설치했을 정도. 객리단길에 버려지다시피 한 적산가옥을 눈여겨본 이진원 대표는 통유리를 시원하게 내고 꽃으로 가득한 공간을 만든 것. 옛 일본식 가옥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리모델링한 것이 특징. 100년 된 나무로 프레임틀을 만든 대형 거울, 재봉틀 다리를 활용한 테이블 등 꽃을 화사하게 빛내줄 고풍 오부제를 곳곳에 두었다. 이진원 플로리스트는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꽃꽂이 클래스를 운영한다. 1~2시간의 원데이 코스부터 한 달 코스의 취미반, 8회 코스의 베이직, 16회 코스의 전문기반 등으로 이루어진다. 색색의 다양한 꽃을 비롯해 공간을 아늑하게 만드는 목화나무, 각종 허브 식물 등을 갖추고 있다.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1길 69 운영시간 11:00-21:00 월요일 휴무



온종일 머물고 싶은 홈카페, 오늘도 두근두근

2016년 11월 전주천이 흐르는 길목에 문을 연 '카페, 오늘도 두근두근'은 객리단길이 북적이기 전부터 존재감을 드러냈다. 서울에서 요리 강사로 일하던 김연진 씨는 전주로 내려와 중학교 때부터 좋아하던 메타세쿼이아 길에 꿈에 그리던 카페를 낸 것. 직접 인테리어를 하고 여행 중에 사 모은 애장품으로 구석구석 꾸몄다. 창가 자리에 앉으면, 전주천 옆으로 메타세쿼이아와 버드나무가 마주 보고 있는 그림 같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가을에는 메타세쿼이아 나무 아래 우수수 떨어진 열매를 주위 손님들에게 나눠주고, 카페에서 자체 제작한 원고지 콘셉트의 미니 엽서도 판매한다. 이곳엔 에스프레소머신이 없다. 핸드드립 커피를 고수하는 덕에 조금 느리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이 없다. 유기농과 공정 무역 원두만을 고집, 에티오피아 베베카 농장에서 재배한 진한 초콜릿과 꿀 향이 나는 '게이샤'와 에티오피아 구마리 농장에서 공수한 달콤한 감귤과 와인 향이 어우러진 '레인포레스트' 중에 고를 수 있다.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44 다산빌딩 전화 +82-70-4233-3676

막걸리 퍼브 방아간

'꽃다울 방(芳)' '맑을 아(雅)'라는 뜻의 방아간. 꽃다운 안주와 맑은 막걸리를 깔아준다라는 유쾌한 뜻을 담고 있다. 1년 전 문을 연 방아간은 김동국, 배문주 커플이 운영하는 막걸리 퍼브로, 레트로풍 인테리어가 눈길을 끈다. 부모님의 빛바랜 결혼식 사진과 미니 과중시계는 예술가의 그림 못지않은 작품이 되었고, 약국에서 내다 버린 나무 벤치는 근사한 웨이팅 의자로 변신했다. 주인의 '픽업 센스'가 보통이 아니다. 길가에 버려진 자개장롱 문짝을 떼어와 맛있는 흰 벽에 포인트를 준 것. 막걸리 잔도 특별하다. 브랜드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1970-80년대 빈티지 스타일. 그 시절의 향수를 추억하게 하는 소품이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주린 배를 채워준다. 오징어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간 해물파전과 서양식 파이를 담은 '아메리칸 치즈 감자전'은 막걸리와 찰떡궁합을 자랑한다.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1길 12-3 운영시간 17:00-02:00, 월요일 휴무, 매월 마지막 주 일·월요일 휴무



Under the Sea 세계의 스노클링 스폿 6

간단한 장비만으로 바닷속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스노클링. 특별한 수영 기술이 필요 없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워터 스포츠다. 휴가철 여행자를 유혹하는 코타키나발루, 가오슝, 썬아, 가고시마, 마닐라, 거제의 대표 스노클링 스폿을 소개한다.

에디터 (AB-ROAD) 편집부



말레이시아 수채화 같은 바다 **만타나니섬** 코타키나발루

코타키나발루 여행에서 에메랄드빛 바닷속을 둘러보는 스노클링을 빼놓을 수 없다. 보통 일일 투어를 통해 가까운 사피섬이나 마누칸섬, 마무틱섬 등을 다녀오지만 여유가 있다면 2004년 개방된 만타나니섬을 추천한다. 배로 1시간 거리에 위치, 만타나니섬은 천혜의 자연을 자랑한다. 속이 흰 비치는 영롱한 바다와 아이보리색 비단을 깔아놓은 듯한 백사장 은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 만타나니섬 주변 바다는 수심이 얇고 물 온도가 높아 스노클링 명당이라고 할 수 있다. 형형색색의 산호와 아쿠아리움에서도 볼 수 없던 온갖 특이한 해양생물을 만날 수 있다. 배에 스노클링 전문 장비가 준비돼 있으며 전문 가이드가 동행해 초보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



타이완 에코 아일랜드 **샤오리우치우** 가오슝

가오슝 남쪽에 위치한 샤오리우치우는 타이완 유일의 산호초 섬. 세계질 내내 스킨스쿠버나 스노클링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바다거북을 볼 수 있는 장소로 인기가 많다. '에코 아일랜드'로 선정된 샤오리우치우는 지속가능한 여행을 위해 환경보호에 힘쓰고 있다. '모래사장 청소하기'에 참여한 여행자에게 '모래사장 화폐'를 제공하는 등 재미난 이벤트도 진행한다. '모래사장 화폐'는 현지 예술가들이 유리 파편에 그림을 그려 만든 쿠폰으로 섬 안에 있는 상점에서 사용하면 할인해준다. 깨끗하게 보존된 환경에서 바다거북과 함께 스노클링을 하는 잊지 못할 경험을 할 수 있다. 스노클링을 즐기면서 샤오리우치우의 상징인 꽃병바위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어보자.





중국
중국 최남단 휴양지 **시다오섬** 썬아

중국 하이난 최남단에 자리한 썬아는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썬아만과 다둥하이, 야롱만, 하이탕만 등 4대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천혜의 휴양지. 연중 포근한 날씨와 아름다운 해변, 200여 개에 달하는 호텔과 리조트를 갖추었다. 스노클링 명소로는 썬아 내륙과 가까워 당일 방문이 가능한 시다오 섬을 추천한다. 거북 등껍질처럼 생긴 시다오 섬은 도시로부터 떨어져 있어 해수 오염이 적고, 환상적인 풍경과 깨끗한 해변을 자랑한다. 여행자 대부분이 워터 스포츠를 즐기 위해 이 섬을 찾는다. 수심 10~20m 정도로 아름다운 산호초가 잘 보존되어 있어 환상적인 산호 파노라마를 볼 수 있다. 로맨틱한 노을도 유명해 워터 스포츠를 즐기며 낭만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일본
신이 머무는 섬 **가케로마섬** 가고시마

일본 규슈섬 남쪽에 위치한 가케로마섬은 따뜻한 기후와 아름답고 푸른 바다가 인상적인 곳. 가고시마와 오키나와 사이에 있는 가케로마 섬은 독특한 생태계가 발달해 '동양의 갈라파고스'라 불리는 아마미 군도에 속해 있다. 10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섬. 거대한 카쥬마루 나무 한 그루가 이곳의 상징이다. 아열대 다우림으로 뒤덮인 고도 200m의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짙은 우림을 바라보며 파도소리를 들으면 동화 속 요정이나 신이 머무는 섬 같아 느껴진다.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바다는 수온이 일정에 1년 내내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다. 가와세 나옴 감독의 영화 <소년, 소녀 그리고 바다>의 촬영지로 유명하다.



필리핀
해양생물의 보고 **바탕가스** 마닐라

필리핀에서 스노클링 하면 보라카이와 세부, 보홀 등을 떠올리지만 마닐라도 그에 못지않은 스노클링 스팟이 있다. '대나무로 만든 작은 배의 노'를 뜻하는 바탕가스는 마닐라 남쪽에 위치했다. 특히 바탕가스의 아날라오는 맑은 바다와 환상적인 저녁노을로 유명해 마닐라 부호들의 별장지로 알려졌다. 코랄 트라이앵글 북쪽에 위치한 바탕가스는 전 세계 산호초의 76%와 3000종 이상의 물고기가 사는 해양생물의 보고로 유명하다. 매년 '아날라오 수중 촬영대회'를 개최해 전 세계 사진가들이 몰려든다. 바탕가스는 스노클링뿐 아니라 스쿠버 다이빙 스팟으로도 최적의 장소다. 세계 50대 다이빙 포인트에 꼽히는 시크릿베이와 해마를 볼 수 있는 선부, 코코넛 포인트 등이 인기다.



대한민국
호수처럼 잔잔한 바다 **윤돌섬** 거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거제도에에는 수려한 비경을 자랑하는 스노클링 스팟이 많다. 이중 가장 인기있는 곳은 구조라 해수욕장에서 서쪽으로 500m 떨어진 윤돌섬. 섬의 80%가 상록 활엽수로 덮여있는 무인도다. 윤씨 성을 가진 삼형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돌다리를 놓았다 해서 효자섬으로 불린다. 카약을 타고 가도 될 만큼 파도가 잔잔해 초심자도 쉽게 스노클링을 배울 수 있다. 망치항에서 출발하는 스노클링 투어는 7월에 시작하는데 참여 인원을 소수로 제한해 북적거림 없이 여유롭게 바닷속을 탐험할 수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만큼 때 묻지 않은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거제의 푸른 바다와 반짝이는 햇살이 어우러진 곳에서 바다 생물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특별하다.



간몬해협을 품은 시모노세키 시의 매력을 말하다



일본 시모노세키 시 시장
마에다 신타로

시모노세키는 규슈와 혼슈 사이의 간몬해협에 접한 도시. 예부터 일본 육해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했다. 또한 아름다운 바다를 감상하며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해 한해 70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시모노세키 마에다 신타로 시장에게 시모노세키의 매력과 앞으로의 관광 비전에 대해 물었다.

에디터 이정화 자료협조 TPO

먼저, 시모노세키(下関)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일본 혼슈 서쪽 끝에 위치하며, 간몬해협(關門海峽)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수질 좋은 온천 등 관광 자원이 풍부해 연간 7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도시입니다. 예부터 국제 무역항으로 발전해 온 시모노세키 항은 현재 항만 물류의 거점으로,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정기 항로를 운영하는 해상 운송의 요충지이기도 하죠. 해운업과 조선업 외에 수산업도 발달했습니다. 일본 내에서 복어 취급량이 가장 많은 도시로, 시내에 수산물 가공 판매 업자나 복 요리 레스토랑이 많습니다. 특히 가라토 시장에 가면 신선한 스시를 먹을 수 있어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여행객이 많이 찾고 있어요.

시모노세키에서 꼭 봐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관광 명소를 추천해 주세요.

가장 인기 있는 곳은 가라토 시장입니다. 주말이면 포장마차가 늘어서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죠.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하는 이유는 바로 스시 때문입니다. 신선한 스시를 1개당 100엔(약 1010원) 정도로 저렴하게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원하는 스시를 직접 고를 수 있고,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도 있습니다. 시장 바로 옆엔 시립수족관 가이쿄칸도 있어 일본 최대 규모의 펭귄 전시와 희귀한 흰긴수염고래 골격 표본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옛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조카마치조후(城下町長府)도 추천합니다. 성 아래에 자리한 마을로, 1327년에 지어진 사찰 고잔지(功山寺)와 조후 번주인 모리가 1903년에 세운 모리 저택 등이 모여 있어 걸어서 돌아볼 수 있습니다. 흙벽이 이어진 거리와 사찰, 신사, 전통가옥을 리모델링한 카페 등 곳곳에 볼거리도 많습니다. 특히 가을엔 단풍이 아름다워 여행하기 가장 좋습니다.

시모노세키는 주로 어느 나라 여행자들이 많이 찾나요?

숙박객 수를 보면 한국인 여행자가 제일 많아요. 전체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시모노세키 항엔 매일 아침 한국에서 출발한 여객선이 도착하고, 근처 기타큐슈 공항에서 들어오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과 대만 여행객이 많습니다. 2017년 이후 중국에서 크루즈를 타고 오는 여행자도 많이졌어요. 지난해에 크루즈를 타고 시모노세키를 방문한 여행자는 약 10만 5000명입니다.

최근 시모노세키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와 여행 트렌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시모노세키에 숙박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보면, 2013년 9857명에서 2017년 1만 9301명으로 늘었어요. 변화가 가변 동아시아권에서 온 개별 여행자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시모노세키에서 가까운 기타큐슈 공항과 후쿠오카 공항에 저가항공들이 많이 취항한 덕분입니다. 시모노세키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시내 음식점과 상점, 관광명소 등에 외국어 안내판을 더 많이 설치하고 면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모노세키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은 뭔가요?

시모노세키가 자랑하는 최고의 관광 자원은 해산물과 아름다운 바다 풍경입니다. 가라토 시장을 비롯해 시내 곳곳에서도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복어 하면 시모노세키, 시모노세키 하면 복어'라고 할 정도로 '시모노세키 복어'는 일본 내에서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잡았습니다. 올해는 시모노세키에서 복어 식용 금지가 풀린 지 1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온 복요리의 역사를 회와 스시, 복어 전골, 복어주(酒) 등 다양한 형태의 먹거리로 만날 수 있습니다. 바다 경치가 좋은 곳으로 츠노시마(角島)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약 100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작은 섬으로, 일본 내에서도 절경 포인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와 CF 촬영지로도 유명하고, 코발트 빛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도 아름다워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도시가 관광 산업을 국가 경제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모노세키는 어떤 식으로 해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나요?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과 중국, 대만, 홍콩, 태국을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에서 여행 박람회나 상담회가 열리면 참석해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시모노세키를 넘어 다른 지역도 여행하는 걸 감안해 행정구역은 뛰어넘는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구치 현과 주고쿠 지방, 인근 자치 단체와 제휴를 하거나 세토내해를 홍보하는 '세토우치 관광 추진 기구'에 참여해 공동 시찰과 미디어 취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기타큐슈 시와 공동으로 외국인 관광객 여행 트렌드와 취향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했습니다.

시모노세키에서 열리는 가장 큰 관광 행사는 뭔가요?

시모노세키엔 '3대 축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85년에 일어난 전투를 모티브로 한 '시모노세키 해협 축제'입니다. 화려한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의 행진과 전투를 재현한 해상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두 번째는 '간몬해협 불꽃 축제'로 간몬해협을 무대로 1만 5000발의 불꽃이 발사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모노세키 바칸(馬関) 축제'가 있습니다. 여름에



펼쳐지는 최대 규모의 축제로, 거리에 야시장이 들어서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 약 4000명의 춤꾼이 선보이는 헤이케(平家) 춤은 압권입니다.

시모노세키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몬해협 주변 워터프론트 개발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오는 활기찬 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최근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체험형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시모노세키에 자리한 농어촌 지역의 풍요로운 자원을 살리면서 그린·블루 투어리즘, 즉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를 매개로 농촌주민과 교류하는 녹색관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TPO 조직 활동에 대해 제안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고 있어 각 지방 자치 단체들이 여행객을 더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TPO 회원국들 간의 활발한 교류와 정보 교환을 통해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모두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K-CLIP 2018 개최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TPO) 사무국과 한국 전주시가 주최하고 군산시, 익산시, 전라북도, 안동시, 강화군, 고양시가 후원한 K-CLIP 2018이 지난 8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성공리에 개최됐다. CLIP은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TPO의 주요 사업으로 개최도시의 문화, 언어 및 우수한 관광자원을 소개하기 위해 매년 회원도시에서 개최된다. 한국 전주에서 개최된 올해 행사에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미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대만 등 9개국에서 42명이 참가했다.

8월 7일 개막식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신연성 TPO 사무총장이 참석해 참가자들을 환영했다. 이어 한국문화와 한국, 한지, 한식 등 전주가 갖고 있는 한국적 브랜드에 대한 특강과 함께 판소리 추임새를 외국어로 배울 수 있는 한국 소리배우기가 진행됐다. 이후 전주향교와 전주 전통문화연수원 등 한국 전통교육시설을 탐방하고 한옥마을과 경기전을 찾아 전주 역사 문화를 듣고 체험했다. 8일부터 10일까지 전주비빔밥과 김치 만들기 체험, 전통예절을 체험하고, 국립 무형유산원 전시관과 전주박물관 등을 탐방했다. 10일 저녁에는 제4회 전주 가객 축제에 참가해 가객문화를 즐겼고, 11일부터 17일까지 TPO 회원도시 팸투어가 진행됐다.

팸투어 첫날은 익산시의 미륵사지와 고스락, 익산 교도소 세트장을 방문했고, 이어 군산시로 이동해 주요 관광지인 시간여행마을과 철길마을을 찾아 근대문화유산을 탐방했다. 또한 군산의 아름다운 밤 풍경과 역사문화자원이 접목된 야간형 문화향유 프로그램 '2018 군산야행축제' 개막식에도 참가했다. 이튿날에는 전라북도청의 후원으로 임실군과 남원시를 방문했다. 임실에서는 치즈테마파크를 방문해 치즈를 직접 만들고 맛보는 시간을 가졌고, 남원에서는 판소리, 가야금을 체험하고 미술관과 광한루원을 방문했다. 특히 남원의 한옥 호텔에서 묵게 돼 참가자들이 크게 만족



했다. 셋째 날에는 안동으로 이동해 하회세계탈 박물관을 견학했고, 하회별신굿탈놀이 특별 공연을 관람했다. 넷째 날에는 강화군으로 이동했다. 옷을 갈아입고 갯벌 체험에 나섰고, 저녁에는 야간 루지를 타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마지막 일정은 고양시. 고양에서의 첫날에는 고양 관광서포터즈 발대식에 참가해 많은 고양 시민에게 인사했고, 이튿날에는 현대모터스튜디오와 원마운트를 방문했다. 특히 원마운트에서는 K-POP 댄스를 배우며 한류를 즐겼고, 이어 스노우파크를 찾아 눈썰매를 탔다. 킨텍스에서 개최된 폐막식에는 윤희성 고양시 신한류 관광과장과 고양 컨벤션뷰로 관계자, 조영호 전주시 관광산업과 팀장, 조달려 TPO 기획총괄부장이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폐막식에서 5개 그룹으로 나뉜 참가자들은 12일간 한국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Korea Through my eyes'라는 주제로 동영상 만들어 발표했다.

K-CLIP 2018은 개최도시인 전주시를 비롯한 TPO 회원도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여는 행사보다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참가자들이 제작한 동영상과 행사 사진은 TPO 공식 웹사이트(www.aptpo.org)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ITE HCMC 2018: 절대 놓칠 수 없는 글로벌 이벤트

호치민 국제관광박람회(ITE HCMC)가 300여 개 이상의 국제기업과 브랜드가 참여하는 가운데 9월 6일부터 8일까지 열린다. 메콩강 유역에서 열리는 박람회 중 가장 큰 규모로, 올해 14회를 맞아 국내외 관광시장을 위한 서비스와 상품을 전시한다. 지방관광기관, 국가관광기관, 관광진흥기관 등이 참여하며 이번 행사에 베트남의 여러 지방 관광부서(DOT)뿐 아니라 각국의 국가관광기관(NTO)과 관광진흥기관(TPO)이 참여한다. 베트남에선 30여 개 이상의 DOT가 참가할 예정이다. 참여 도시로는 바리어붕따우, 벤 쟈, 빈딘, 다낭, 닥락, 동나이, 동탑, 잘라이, 하이퐁, 하노이, 카인호아, 럽동, 룡안, 닌빈, 닌투언, 팜남, 투아티엔후에, 락안, 빈롱이 있다. 바이어와 관광객들은 인도관광청, 일본관광청, 한국관광공사, 말레이시아 관광진흥위원회, 라오스 정보문화관광청, 캄보디아관광청, 인도네시아관광청, 미얀마 관광, 나고야 시, 페낭 글로벌 관광, 대만관광국 방콕 사무실, 도쿄 컨벤션 & 관광국, 태국관광청(HCMC 사무서) 등의 부스를 만날 수 있다. 호주와 부탄,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남아프리카, 대한민국, 대만, 태국, 베트남 등에 주재한 기업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2005년에 시작된 이번 행사는 베트남에서 열리는 국제 관광행사로 수백 명에 달하는 국제 참가업체 및 바이어들이 참여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베트남 유일의 국가 관광 행사로, 메콩강 지역 5개 국가의 관광 연맹이 지원하는 유일한 관광 행사다. 2017년 열린 ITE HCMC에는 3만 명이 넘는 무역 및 관광업계의 방문자들이 참석했다. ITE HCMC 2018은 베트남 국가 관광청, 호치민 시 관광청, VINEXAD 무역 페어 & 광고 JSC, 인포파가 주최한다. www.itehcmc.com



제8회 TPO 포럼 개최, '스마트 관광'이 관광객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명

베트남 호치민 시에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된 TPO 포럼에서 회원도시의 관광관련 공무원들은 기술발전이 어떻게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접하게 됐다. 기술발전으로 인해 보다 편하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도시들을 여행할 수 있게 된 것. 제8회 포럼에서 세계 정상급 연사들은 각 회원도시의 대표단과 초청 인사들에게 스마트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관광객들이 어떻게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티켓을 예매하고, 교통을 이용하고, 레스토랑을 예약하며, 박물관이나 관광명소로 찾아가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행사 중에는 스마트 관광 상품 박람회가 열리기도 했다. 회원도시들은 부스를 설치해 각 도시의 관광 상품을 현지 여행사에 소개했다. 이번 행사에는 6개국 31개 도시에서 300명의 대표가 참석했다. 2004년 5월 부산에서 처음 개막된 TPO 포럼은 항저우, 블라디보스토크, 페낭, 쿠알라룸푸르, 전주에서 개최된 바 있다.





2018 제14회 호치민시 국제여행박람회
호치민, 베트남 | 9월 6일~9월 8일
장소 베트남 호치민시 7구역 사이공전시컨벤션센터(SECC)

메콩강 유역 최대 규모의 여행박람회. 호치민 국내 및 해외여행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베트남 각지의 관광 당국뿐 아니라 아시아 주요 관광도시의 관광 기관 및 관광진흥기구 그리고 남아공 등 10개국 업체도 참여할 예정.



2018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게임 페낭, 말레이시아 | 9월 7일~9월 15일
장소 말레이시아 페낭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다종목 스포츠 마스터스 게임 행사. 양궁을 비롯해 체조, 배드민턴, 농구, 사이클링, 댄스 스포츠, 축구, 골프, 하키, 네트볼, 사격, 소프트볼, 스쿼시, 수영, 탁구, 태권도, 테니스, 볼링, 배구, 역도 및 유수, 총 21종목 경기가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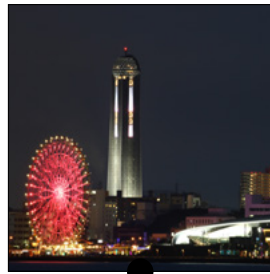
호조야(放生会) 후쿠오카, 일본 | 9월 12일~9월 18일
장소 하코자키 궁(笹崎宮)

후쿠오카를 대표하는 가을 축제. '만물의 생명에 자비를 베풀고 살생을 금한다'는 신의 뜻을 기리는 행사로, 사업 번창과 가내 안전을 기원하며 마츠리 기간에 잉어와 비둘기 등을 방생한다. 약 1Km의 참배 길에는 약 500여 개의 노점이 들어서 활기가 넘친다.



2018 중국(대련) 국제 패션 방직품 박람회(2018 China(Dalian) International Garment & Textile Fair)
대련, 중국 | 9월 14일~9월 16일
장소 대련 월드 엑스포 센터(World Expo Center)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와 대련시 인민 정부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가 차원의 전문 박람회. 2018 대련 국제 패션 방직품 박람회는 다양한 콜라보레이션과 크로스오버를 시도하며 '정부+기업+시장'의 주도와 참여라는 새로운 모델을 취한다. 동북아시아 유행의 바로미터 역할을 함으로써 중국 패션 방직품 산업의 국제협력과 교류의 중요한 플랫폼임을 보여줄 것이다.



간몬해협 야경 크루즈 시모노세키, 일본 | 9월 21일~10월 26일
장소 간몬 해협(가라토 출발)

간몬해협(關門海峽)을 유람하면서 시모노세키와 모지항(門司港)의 마을 야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크루즈 투어. 운항일 당일 시모노세키 시내에서 숙박한 고객은 정가에서 50% 할인된 금액으로 탑승할 수 있다.



2018 상해 재즈 페스티벌 상해, 중국 | 9월 22일~9월 23일
장소 중국 상해 서안 캠프 CAMP3399

신개념 상해 재즈 페스티벌. 복고를 테마로 뉴(new) 스타일과 올드(old) 스타일이 혼합된 Big city, JZ World, China Jazz Power, Rock'n'roll, Soundbox, Jazz Youth 등 6가지 무대를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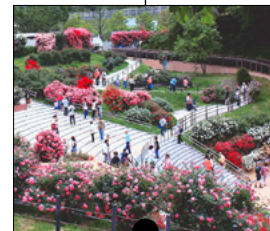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18 안동, 한국 | 9월 28일~10월 7일
장소 안동 탈춤공원

'아누스, 축제의 문을 열다'라는 주제로 개최, 아누스를 통해 일상 속 나와 축제장 속의 나를 동시에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등 13개국 14개 팀의 해외 탈춤공연과 국내 전통 탈춤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탈춤경연대회, 탈 그리기, 대동난장 퍼레이드 등을 통해 일상 속에서 억눌렸던 감정과 유희적 본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진정한 축제의 장을 만들 예정이다.



타이가 페스티벌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 9월 29일~10월 14일
장소 블라디보스토크

퍼시픽 러시아 관광 연합이 주관, 인근 레스토랑과 여행사, 타이가 식품회사, 공원 및 리조트와 함께 개최하는 행사. 미식, 관광 및 행사 등 3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된다. 축제 기간 동안 연계된 레스토랑에선 타이가 식재료로 만든 요리와 음료가 저렴한 가격에 제공된다.



그린파크 가을 장미 페어 기타큐슈, 일본 | 10월 2일~11월 1일
장소 히비키나다녹지(그린파크)

그린파크는 기타큐슈 시내에서 가장 큰 공원. 이곳에서 약 320종, 2500그루의 다양한 장미를 볼 수 있다. 그린파크 내엔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넓은 잔디 광장과 캥거루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유대류(有袋類)를 만날 수 있는 '캥거루 광장(히비키 동물 월드)', 나무와 꽃, 열대 새, 파충류, 나비가 사는 '열대 생태원' 등도 있다.



2018 청도 국제 비치 컬처 페스티벌 청도, 중국 | 10월
장소 중국 청도

1992년 첫 선을 보인 청도 국제 비치 컬처 페스티벌이 올해 10월 처음으로 해수욕장에서 개최된다. 모래 조각대회, 비치웨딩, 비치발리볼, 비치 줄다리기 등 다양한 스포츠문화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싱크로나이즈 페스티벌 2018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 10월 5일~10월 7일
장소 자카르타 PRJ 꼬마요란(감브리 EXPO)

5개의 스테이지에서 다양한 장르의 곡이 연주되는 연례음악 축제. 매년 수만 명의 관객이 자신이 응원하는 뮤지션의 공연을 보기 위해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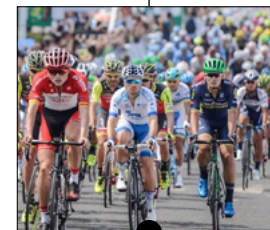
제10회 강릉커피축제 강릉, 한국 | 10월 5일~10월 9일
장소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이젠(E-ZEN) 및 강릉 일원

'커피도시와 녹색 플러스(+) 성장'이라는 주제의 친환경 축제로 개최된다. 축제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제한되니 개인 컵을 가져오는 것이 좋다. 이번 커피축제에서는 100인(人) 100미(味) 바리스타 퍼포먼스, 강릉의 다양한 커피숍 및 명소를 찾아가는 기록앨리 '강릉커피유락(遊樂) 스탬프앨리', 커피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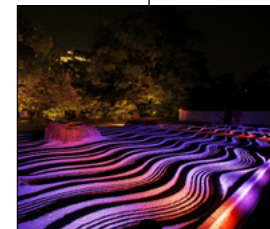
2018 영주 무섬외나무다리 축제 영주, 한국 | 10월 6일
장소 경북 영주시 문수면 무섬마을

무섬마을은 한국의 대표적인 물놀이 마을. '물 위에 떠 있는 섬'으로, 마을 전체가 국가지정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로 지정되었다. 축제의 주제가 무섬마을의 상징이기도 한 외나무다리는 콘크리트 다리가 놓이기 전인 30년 전까지 마을과 세상을 연결하는 유일한 수단이자 통로였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축제를 개최해 이를 추억하며 전통문화를 이어가고 있다. 선조들의 생활상을 재연한 무섬외나무다리 퍼포먼스, 전통상여행렬 재연, 음악회, 무섬마을 사진 촬영 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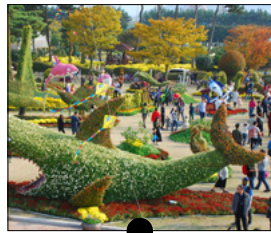
2018 해남도 국제 도로 사이클대회(13th Tour of Hainan 2018)
싼야, 중국 | 10월 하순
장소 중국 싘냐

천혜의 지리적 환경을 갖춘 해남(海南)은 사이클을 즐기는 데 최적의 장소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해남도 국제 도로 사이클 대회 루트는 해남도 18개 시와 현을 관통한다. 사이클 종목이 기존의 컨티넨털 투어 2.2등급에서 투르드랑카위(2.HC등급)로 상승하였으며, 전 과정이 180여개 국가에 생중계된다.



하카타 구시가지 라이트업 워크 후쿠오카, 일본 | 10월 31일~11월 4일
장소 하카타 구시가지 내의 절과 정원

하카타 구시가지 내에 있는 절과 정원에서 라이트업 행사가 진행된다. 환상적인 조명으로 표현한 문화적인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것. 평상시에는 출입 금지였던 구역도 일반인에게 오픈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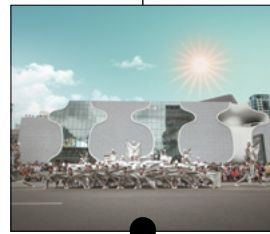
제13회 거제섬꽃축제
거제, 한국 | 10월 27일~11월 4일
장소 거제시농업개발원

꽃과 문화, 사람이 어우러지는 거제 대표 가을 축제. 농업개발원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각양각색의 가을꽃을 만날 수 있다. 잔디광장에는 거제 청와대 국화조형물과 흥남철수작전에서 많은 생명을 구한 평화의 상징인 메르디스 빅토리아호 국화조형물을 비롯하여 거제면 기성관, 돌고래, 돛새치, 문어 등 조선해양관광도시 거제를 상징하는 다양한 국화 조형물이 전시된다. 또한 KNN직장인밴드 페스티벌, 전통민속 예술제, 청소년 록트락콘서트, 거제현령부임 행차 재현행사 등 풍성한 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2018 제11회 단사산 종주
사오관, 중국 | 11월 3일
장소 중국 사오관시 단사산

최근 몇 년간 생태 환경과 자연 자원을 활용해 '아웃도어 액티비티 천국'으로 자리매김한 사오관시. 10회째를 맞는 단사산 종주엔 중국 국내, 홍콩, 마카오, 대만 및 미국, 영국의 아웃도어 여행클럽에서 약 8000명이 참여한다.



2018 타이중 국제 댄스 퍼레이드 페스티벌(2018 Taichung International Dance Parade & Festival)

타이중, 대만 | 11월 9일~11월 11일
장소 대만 타이중시정부 앞 광장 및 여름 녹지공원

연기자와 대중이 한데 어우러져 땅 밟기 행진을 하며 춤을 추는 행사. 올해 3회째로, 대만의 학교별 관련 학과 학생 및 민간 기업을 초청해 현지의 학교와 기업별로 특별 팀을 구성하는 것뿐 아니라 일본, 한국, 동남아 등 세계적으로 우수한 팀을 초청해 함께 교류할 계획이다.



제67회 오하라마쓰리
가고시마, 일본 | 11월 2일~11월 3일
장소 노면전차 다카미바바(高見馬場) 정류장 부근

1949년에 시작된 오하라마쓰리는 미니미큐슈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축제. 2만 5000명의 무용수가 가고시마를 대표하는 민요 '오하라부시'와 '가고시마한아부시' '시부야온도'에 맞춰 춤을 추는 '소도리'를 볼 수 있다.



시모노세키 생선 축제, 리틀 부산 축제, JA농업축제(동시개최)

시모노세키, 일본 | 11월 23일
장소 시모노세키역 주변

슈퍼 점보 복어 냄비 요리를 비롯해 맛있는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시모노세키 생선 축제와 한국 음식과 전통 무용을 즐길 수 있는 리틀 부산 축제 그리고 현지에서 수확된 신선한 야채 판매가 이뤄지는 JA 시모노세키 농업 축제가 시모노세키역 주변에서 동시에 열린다.



모토GP 말레이시아 2018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 11월 2일~11월 4일
장소 쿠알라룸푸르 세팡 인터내셔널 서킷

매년 12만 명이 넘는 관중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 올해엔 약 80개의 모터사이클 관련 부스가 설치되고 레이싱 이외에도 다양한 엔터테인먼트가 제공될 예정이다. 혼다, 야마하, 두카티, 스즈키, 아프릴리아 등 주요 모터사이클 제조사와 전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라이더가 모인다.



베트남 퀘스트 페스티벌 2018

하노이, 베트남 | 11월 23일~11월 25일
장소 베트남 하노이 썬딩캠

아름다운 산간지역인 썬딩캠에서 개최되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예술, 음악 및 환경 페스티벌. 따스한 공기와 운치 있는 음악 그리고 동모 호수의 풍경이 만들어내는 로맨틱한 분위기가 일품이다.



제4회 보령 김 축제
보령, 한국 | 11월 2일~11월 4일
장소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대형 김밥 만들기 이벤트를 시작으로 김 생산체험(김뜨기, 김 말리기, 김 굽기 등), 해조류 미용 팩 만들기, 꼬마김밥 만들기, 셰프와 함께하는 김요리 시연 등 김과 함께하는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을 즐길 수 있다.

TPO Members

86 city members, 45 industry members

CITY MEMBERS

- CHINA**
Chengdu, Qingyuan, Dalian, Foshan, Guangzhou, Hangzhou, Qingdao, Sanya, Shanghai, Shaoguan, Shenyang, Suzhou, Tianjin, Urumqi, Weihai, Yantai, Zhangjiajie, Zhaoqing, Zhengzhou, Liupanshui, Lianyungang, Dujiangyan
- CHINESE TAIPEI**
Kaohsiung, Taichung, Tainan
- KOREA**
Andong, Boryeong, Busan, Busan Haeundae-gu, Busan Jung-gu, Buyeo-gun, Changwon, Chuncheon, Daegu, Daegu Jung-gu, Daejeon, Donghae, Gangneung, Geoje, Gimhae, Goyang, Gunsan, Gwangju, Gyeongju, Hadong-gun, Iksan, Incheon, Incheon Gangwha-gun, Jeonju, Namhae-gun, Pohang, Sokcho, Tongyeong, Ulsan, Ulsan Dong-gu, Ulsan Nam-gu, Yeongju, Jeollabuk-do, Ulju-gun
- RUSSIA**
Vladivostok, Irkutsk
- JAPAN**
Fukuoka, Kagoshima, Kitakyushu, Kumamoto, Miyazaki, Osaka, Shimonoseki, Takeo
- THAILAND**
Bangkok
- VIETNAM**
Danang, Hai Phong, Hanoi, Ho Chi Minh
- PHILIPPINES**
Manila
- MALAYSIA**
Ipoh, Kota Bharu, Kota Kinabalu, Kuala Lumpur, Melaka, Penang, Taiping
- INDONESIA**
Jakarta, Surabaya, Yogyakarta, Bitung

INDUSTRY MEMBERS

- CHINA**
Guangzhou Garden Hotel, Guangzhou Star Cruises Co., Ltd., GZL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Ltd., Shandong Channel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Co., Ltd., China Travel International (Xinjiang) Ltd., China Comfort Xi'an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Co., Ltd., Dalian Gulian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CITS Guangdong, China Travel International Sanya Co., Ltd., Hainan Gaoli Holiday Travel Service Co., Ltd.
- JAPAN**
Kagoshima Convention & Visitors Bureau, Fukuoka Convention & Visitors Bureau, JTB Corp. Fukuoka Office
- KOREA**
BEXCO, Busan Tourism Association, Arum Travel Service Co., Ltd., Cheongsong Travel Service Co., Ltd., Road ABC Media Co., Ltd., TourJapan Co., Ltd., Intravel Ltd., Haeundae Centum Hotel, Daegu Tourism Association, Lee Convention, Busan Tourism High School, The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and Leisure, Solar Travel Agency, BS FunTour, Benikea Jeonju Hansung Tourist Hotel, Sky Tour, JB Tour, Panworld Dream, Tour Fun Co., Ltd., Wolseong E&C, Tongyeong Tourism Development Corporation, Stanford Hotel & Resort, Dongback Tour, Dongwon Royal Country Club & Resort, Ulsan College
- MALAYSIA**
Taiping Tourist Association
- MONGOLIA**
Ancient Nomads Tour Agency
- RUSSIA**
Gavan Tour-Center Co. Ltd
- U.S.A**
MCM Group Holdings Ltd.
- VIETNAM**
Haiphong Vanhoa One Member Limited Corporation, Haiphong Vocational College of Tourism
- INDIA**
Abroad Consultancy India Pvt. Ltd.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PO Contact Information

Address. TPO Secretariat, 8th Floor of Kwang-Eun Building, No.480 Suyeong-ro, Suyeong-gu, Busan 48314,

TEL. +82-51-502-2984~7 FAX. +82-51-502-1968

E-mail. secretariat @ aptpo.org

Web Site. <http://www.aptpo.org>